

# 가정의 달 맞아 '한우 최대 50% 할인행사'

### 농식품부, 내달 10일까지 '소(牛)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고기 할인행사' 전국 1700여개 매장에서 진행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정의 달을 맞아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4일간 '소(牛)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고기 할인행사'를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주요 온라인몰 등 1,700여 개 매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

회, 농협경제지주와 협력해 마련됐으며, 매장별 일정은 재고와 운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일부 온라인 한우장터는 행사 초반 별도 일정으로 운영된다.

할인 품목은 등심과 양지, 불고기·국거리용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부위로 구성됐으며, 1++부터 2등급까지 다양하게 판매된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100g

당 7,160원, 양지는 4,810원, 불고기·국거리용은 3,360원 이하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는 평년 같은 시기 대비 16~25% 저렴한 가격이며, 일부 매장에서는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특히 등심 가격은 설 명절 할인행사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고려해 소비자 부담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한우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품질 좋은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축산물 가격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사진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경.

##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

### 전기안전공사, 중소기업 판로·기술 지원 성과 인정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 판로 지원 등 동반성장 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공사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 협력기업 판로 확대, 상생결제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격점검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협력기업의 성장

을 함께 이끈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에너지안전 분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약 8천7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 성과를 거두는 데 기여했으며, 농어업 분야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공사는 중소기업 관련 유공 포상도 수상하는 등 동반성장 분야에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남화영 사장은 "최우수 등급 달성은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상생 기반을 더욱 강화해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기자

## 아까시나무 개화 시작... 남부 지역 꿀 생산 '유리'

### 농촌진흥청, 개화 시기·꿀 생산 모의 지수·꿀 수분 모의 지수 산출

농촌진흥청이 올해 아까시나무 개화 시기와 꿀 생산 예측 결과를 발표했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17개 양봉 주요 지점의 최근 6년간 데이터를 분석해 2026년 개화 시기와 꿀 생산 모의 지수, 꿀 수분 모의 지수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아까시나무는 창녕과 화순에서 4월 29일 개화를 시작으로 남부 지역은 5월 1~3일, 중부는 5월 3~7일, 북부는 5월 5~8일 사이 개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이동양봉 농가는 남부와

서 시작해 중부와 북부로 이동하는 순차적 채밀 전라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제 개화 시기는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단기 예보를 반영한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꿀 생산 여건은 남부 지역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함안과 창녕, 김천·구미·화순 등이 높은 생산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으며, 중부와

북부 지역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꿀 수분 함량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예측되면서 품질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수분 함량이 높을 경우 벌꿀 품질이 저하될 수 있어 채밀 이후 탈수와 건조 등 관리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예측이 기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된 만큼 별 상태나 농약, 사양 관리 등 현장 변수에 따라 실제 생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상근 기자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2분기 전문가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도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2분기 전문가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진흥원은 27일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전문가 컨설팅 사업이 높은 신청률을 보이며 기업 지원의 주요 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컨설팅 지원사업은 연중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해 분기별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분기에는 예산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전문가 컨설팅은 기업별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한 뒤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실제 경영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진흥원은 3분기부터 일부 분야에서 컨설팅 수요 대비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모집도 검토하고 있다. 특정 분야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해 보다 균형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컨설팅 신청은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에서 기업 애로 해소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오상근 기자

## 국민연금공단, 고객만족도 2년 연속 '우수'

국민연금공단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단은 2025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3.7점을 기록해 전년보다 1.1점 상승하며 역대 최고 점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수는 전체 공공기관 평균(89.2점)보다 4.5점, 중정부기관 평균(91.4점)보다 2.3점 높은 수준으로,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18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과 이용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국민 체감 공공서비스 수준을 가늠하는 대표 지표다.

세부 항목에서는 직원 친절성이 96.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정확성과 효율성(96.3점), 업무 처리 신속성(96.2점) 등 주요 항목에서도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단은 그동안 고객 중심 서비스 혁신을 위해 직원 대상 고객서비스 교육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기반 상담 지원과 비대면 서비스 확대, 고객 의견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번 성과는 국민의 신뢰와 직원들의 노력이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신뢰받는 연금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중기부, '찾아가는 현장클리닉' 본격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해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현장클리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기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2026년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사업 신청 접수를 27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장클리닉은 기존 전화나 방문 상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영·기술 문제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진단부터 해

결 방안까지 일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소기업과 예비 창업자이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참여할 수 있다. 지원 분야는 창업, 금융·자금, 회계·세무, 기술, 생산관리, 수출입, 법무, 인사·노무, 경영전략, 정보화, 마케팅·디자인, 특허 등 총 12개다.

전문가는 창업·수출입·기술 분야의 경우 최대 7일, 그 외 분야는 최대 3일간 현장을 방문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자료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해 기

업은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357 콜센터나 비즈니스지원단 누리집,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상담위원 추천을 통해 기업에 적합한 전문가가 배정된다.

올해부터는 수행기관을 기존 단일 체제에서 확대해 전문 인력 구성을 강화하고 상담 품질을 높였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기업 진단 보고서를 새롭게 도입해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천할 계획이다.

/오상근기자

## 전북테크노파크,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참여기관 선정

전북테크노파크가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2026년 K-방산 스타트업 1단계 육성사업' 전라·충청권 공동 참여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테크노파크는 대전테크노파크와 이노폴리스벤처협회, 대전방산산업협동조합,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을지연구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되며 총 15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이 사업은 방산 경험이 없는 초기 창업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과제 기획과 교육, 선행 연구개발, 멘토링 등 단계별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민간 기술의 국방 분야 확산과 방산 생태계 혁신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과 광주, 전남 지역의 방산 스타트업을 발굴해 기술 개발 기획부터 시제품 제작과 검증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은 성과 평가를 거쳐 향후 2단계와 3단계 연구개발 사업에도 도전할 수 있어 방산 분야 진입과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또한 전북의 첨단소재 산업과 대전의 드론 산업을 연계한 초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업 발굴부터 성장 지원까지 체계적인 운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로봇과 드론, 소재 등 지역 특화 기술의 방산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 생태계 확장도 기대된다.

전북테크노파크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협약 체결 등을 거쳐 5월부터 기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